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탄력

남원시, 도내 유일 공모 선정...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완성 선도 사업 추진

남원시가 국내 최초 소각장 폐열 활용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을 위해 선도 사업으로 준비한 농식품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이하 스마트팜)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최대 국비 240억원을 확보하면서 "미래농생명 산업 허브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남원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위치도

이 사업은 대규모 집적화된 스마트팜 창업 단지를 조성, 청년농업인들의 스마트팜 창·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면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전국 16개 지자체 중 높은 경쟁률을 뚫고 도내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 사업 선정에 앞서 최경식 시장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면 평가에 직접 발표자로 나서 남원의 스마트팜 생태계 구축 노력과 향후 비전 등을 논리적으로 소개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등 사업 추진의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해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결실을 만들어 냈다는 평이다.

마중물 사업으로, 대산면 수덕리 일원 16.1ha에 2026년까지 사업비 최대 240억원 전액 국비로 투입해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방식은 농어촌공사에서 부지 매입과 기반을 조성한 후 농업법인이 민간투자 등을 활용해 공사가 조성한 사업부지를 매입, 대규모 스마트농업 단지를 복합개발하고 15% 부지를 남원시에 기부 채납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팜을 선도하는 남원시에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또한 시는 본 사업과 연계해 스마트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연말 전북자치도의 농생명 산업 지구 지정을 받아 규제 완화 및

세계 특례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해당 지구 내 △스마트팜 임대경역(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가공·유통(스마트팜 혁신단지) △실증(스마트 원예단지) △주거(농촌보급자리) △정주 여건(농촌협약) 등을 집적화하고, 정주 여건을 종합패키지 지원 청년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스마트팜 확산모형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로부터 농생명산업 지구를 지정받게 되면 전북대 남원생로컬캠퍼스와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이 본 단지에 취업 시 체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어 이들이 남원에서 교육받고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된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7개 부서 간 업무 협력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 단지를 마중물로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완성을 통해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뉴트라코어, 투자협약

오수 제2농공단지 75억원 규모 건강기능식품 공장 설립

임실군 오수 제2농공단지에 75억원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공장이 들어설 전망이다.

심민 임실군수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김중훈 경제부지사, (주)뉴트라코어 최범락 대표와 함께 오수 제2농공단지 내 공장 신설 투자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관저원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매출 증대와 시장 점유율 확대에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여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우뚝 서겠다"고 피력했다.

(주)뉴트라코어는 건강기능식품 소재 연구개발(R&D) 기업으로 천연물(와사비추출물, 레몬밤추출물, 레몬향추출물 등) 연구개발에 대한 오랜 경험과 식약처 허가를 통한 독점적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

연내 공장착공에 들어가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6,612㎡ 부지에 1,773㎡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게 된다.

뉴트라코어는 이 공장에서 천연물 소재 생산 설비를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은 기능성 원료 생산 및 완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임실군의 특화 소재에 대한 연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의 개발을 진행하여 원재료 매입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신규 기능성 소재의 생산을 위한 농장 구축 등 지역 농가를 위한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범락 대표의사는 "오수 제2농공단지 공장을 설립해 국내 천연물 소재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는 물론, 지역 내 천연자원 재배육성과 관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기업들이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뉴트라코어가 동부권 산업혁명의 이점표가 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민 군수는 "이번 뉴트라코어의 입주 계기를 오수 제2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며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성공적인 투자모델을 만들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생산성도 높아지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남원시는 여름 휴가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원산지 미표시 및 위장표시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남원시에서는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안전한 소비를 위해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왔다.

이번 원산지 단속은 점검 품목과 대상을 늘려 실시할 예정이고 주 점검 품목은 가리비,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 수입 물량 및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장마철 대비 가축 분뇨 배출시설 집중점검

임실군이 환경오염 취약 시기인 장마철을 대비하여 주요 하천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집중점검한다.

이는 가축분뇨 야적 방치와 시설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고 악취 저감 및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실시한다.

군은 공공수역 인접 배출시설 및 반복 민원 발생시설 등 20개소를 선정하여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3주간 집중점검을 할 계획이다.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처리방식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악취 발생 시설을 위주로 악취 포집을 병행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가뭄 상황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및 악취 기준 초과 등 위중한 상황에 대해서는 고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시설 운영 전범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악취 및 수질오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제19회 순창장류축제 부스 운영자 모집

29일까지 신청 접수

순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인 제19회 순창장류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스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펼쳐질 이번 축제는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에서 진행되며, 수백 년을 이어온 장맛의 고장에서,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특별한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류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장류를 재료로 한 먹거리와

순창에서만 맛볼 수 있는 향토 음식과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부스 운영을 위한 신청자격은 순창군에 소재한 단체(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이 된 식당(개인)이 해당된다. 단, 순창군에 없는 장류 관련 품목과 연관된 체험·판매 부스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도 참여 가능하다.

특히, 군은 붉은색 옷을 입은 관광객에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Red-day' 이벤트를 준비했으며, 모든 부스 운영자는 이 'Red-day' 할인 행사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시된 모집 공고내용을 참고해 이달 29일까지 군청 문화관광과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전통 장류의 깊은 맛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면서 "우리 지역의 숨은 보석 같은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 축제의 풍성함을 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추진

남원시는 여성농업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농작업 및 가사노동에서 비로워지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카드 발급은 읍면동에 신청 후 확정이 되면 자부담 2만원과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 지역 농협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아직 생생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여성농업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8월 9일까지 3차

추가 신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생생카드는 1인당 연간 15만원(보조 13만원, 자부담 2만원)으로 유증·건강보험적용·사이버거래·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 전국 어디든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하반기 행정인턴사업 오리엔테이션 개최

순창군이 22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행정인턴으로 선발된 24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되는 순창군 행정인턴사업은 행정체질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와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을 위한 진로탐색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행정인턴사업 참여 대상 대학생을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 운영하고 동계, 복흥, 쌍치, 구림면처럼 원거리 학생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우선선발 범위도 확대했다.

공개 추첨을 통해 저소득층과 원거리 참여자 대상으로 한 우선선발 3명



과, 일반선발 21명을 포함한 최종 24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행정인턴은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4주간 군청 각 부서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게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주의 당부

순창군은 7월부터 무더위와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세균 증식으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주로 오염된 물이나 식품 섭취로 인해 설사, 구토,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여름철 기온 상승 시 발생 빈도가 높아지며 집단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 습관화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 과일 등은 깨끗한 물에 씻어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조리하지 않기 △생선, 고기, 채소 등 도마는 분리 사용하기의 6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전주매일 캠페인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